완도군-미 NASA,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협력

신우철 군수 미국 방문해 협의
기후변화 대응 해조류 가치 공감
ARPA-E와 외해 양식 기술 협력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군과 미국 항공우주청(NASA)이 해조류 블로카본 인증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신우철 군수가 최근 미국 항공우주청(NASA)과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고등계획원(ARPA-E)을 방문해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건강식품, 미래 식량, 블루카본 등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해조류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연구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NASA는 지난 2021년 완도의 해조류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 차로 해조류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언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신우철 군수 등 완도군 일행이 지난 19일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고등계획원(ARPA-E)을 방문해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등에 대해 협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신 군수는 이번 NASA 방문 기간 완도의 해조류 양식 기술과 해조류의 우수성, 블루카본(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의 가치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신 군수는 로라 로렌조니 NASA 해양생물·생물지구화학 책임자와의 면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완도 해조류 양식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조명해 줄 것"을 요청해 협조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신 군수 일행은 NASA에 이어 ARPA-E도 방문했다.

ARPA-E는 지난 1월 한미 에너지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2025~2029년)인 '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 대상지인 완도군을 방문했었다.

신 군수는 에블린 엔 왕 ARPA-E 원장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완도군은 외해 양식을 통해 생산된 해조류를 해양바이오산업 소재 및 미래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군 마케팅 부문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신안군이 2024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신안군은 지난 21일 박우량 군수와 한국 관광정책연구학회(TOPA) 이연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신안군에 대한 관광마케팅 부문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 관광정책연구학회에서 주관한 이 대회는,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광마케팅·관광개발·문화관광자원·생태관광자원·관광산업·관광디자인 등 7개 부문에 공모를 거쳐 9월 24일 결과를 발표했다.

신안군은 관광마케팅 부문에 「1섬 1컬러(Color) 마케팅」 사례를 제출하였으며,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정책과 리더십, 민관 협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에서 이연택 회장은 "신안군 사례를 접하면서, 교과서에서 보던 이상적인 모범사례를 보는 기분이었다. 앞으로도 신안의 관광정책이 더욱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섬 1컬러, 1섬 1뮤지엄, 1섬 1정원 정책이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도 군민의 자긍심을 만들어가는 섬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장이 박우량(왼쪽) 신안군수에게 상장(패)를 전달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영광군 생활체육한마당 성료
19개 종목에 2천여명 참가

영광군은 지난 23~24일 영광스포티움 및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제27회 생활체육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장세일 영광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김강헌 영광군의회 의장, 정병환 영광군체육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각 종목별 협회장들이 참석했다.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주최하고 영광군체육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궁도, 게이트볼, 농구, 배드민턴, 축구, 탁구, 테니스 등 19개 종목에 2000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해 건강을 증진하고 동호인 간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체육인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는 영광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

무안군, 농촌 고령화 대응 양파 정식 농기계 연시회

기계화율 높여 농촌 인력 문제 해소

무안군은 최근 양파의 기계화율을 높이고 증가하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파 정식 농기계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연회는 무안군 몽탄면에서 전남도와 무안군 관계자, 양파 기계화 참여 협의체, 농기계 제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파 정식기 사용 요령 및 조작 방법 설명, 기계화 참여 농가 양파 기계 정식시연 순서로 진행됐다.

양파 정식 기계화는 인력 대비 높은 작업효율로 농가들의 만족도가 높아 군은 양파 기계화 재배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재광 무안군 식량원예과장은 "이번 연시회는 무안군의 특산품인 양파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농업 경영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며 "무안군은 양파 일관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무안군이 지난 20일 양파 정식 농기계 시연회를 열었다. 〈무안군 제공〉

영암 월출산서 남생이 포착
겨울잠 안자고 활동 '이례적'

지난 21일 포착된 월출산 깃대종 남생이.

영암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따뜻한 기온으로 겨울잠을 잊어버린 남생이들이 월출산에서 노닐고 있는 모습이 최근 포착됐다고 26일 밝혔다.

평균적으로 11월 초면 겨울잠에 들어가는 남생이들이 11월 넷째 주까지 활동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사무소는 설명했다.

기상청 기준 2023년 10월 월출산을 품고 있는 강진군 평균기온은 16.4℃, 최고기온은 26.3℃였는데 올해는 17.9℃, 최고기온은 28.3℃로 기온이 지난해 보다 평균 1.5℃ 높았다.

남생이는 자라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 민물거북으로 월출산국립공원의 깃대종(특정지역 생태계를 대표할 만한 종)이다.

서식환경이 나빠지면서 현재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서 보호받고 있다.

날이 추워지는 11월 초 동면에 들어가 이듬해 4~5월에 깨어난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목포시 체육시설 확충·보수
국·도비 58억3000만원 확보

목포시가 최근 내년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42억3000만원, 도비 12억원, 특별교부세 4억원 등 총 58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목포국제축구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및 목포실내수영장 지붕보수보강 등 체육시설의 확충에 사용된다.

시는 목포국제축구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2년 사업비로 국비 23억8000만원(2025년도 7억1400만원 지원)을 확보했다. 이번 편의시설 개선은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또 실내 수영장 지붕 보수보강을 위해 2년 사업비 국비 18억5000만원(2025년도 9억2500만원 지원), 특별교부세 4억원을 지원받아 쾌적하고 안전한 수영장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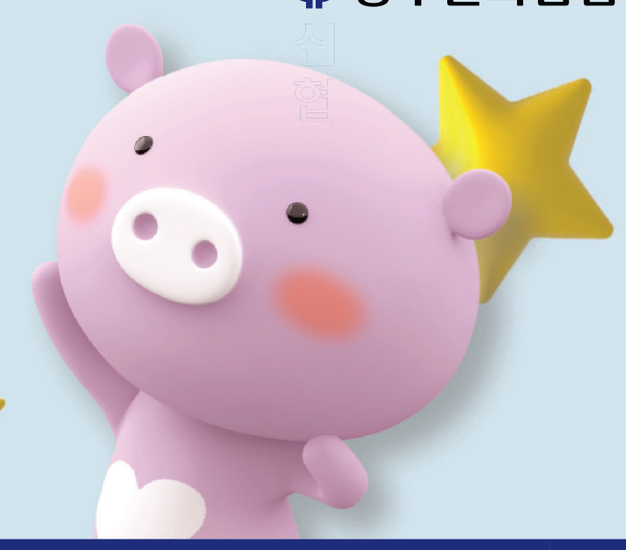
이와 함께 202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을 위한 균특전환사업비(도비) 12억원도 확보했다. 이 예산은 옥암수변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목포야구장 조명탑 설치,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를 통해 목포시 체육시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